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을 통해 본 개인성과 집단성

우정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제한국학부 조교수, 고고학 전공
myjywoo@aks.ac.kr

- I. 머리말
- II. 개인성, 집단성, 그리고 무덤
- III. 호서지역 거석묘와 비거석묘
- IV. 매장관행과 일상관행
- V. 맺음말

I. 머리말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¹⁾는 사회적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서 복합사회 형성과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현대적인 의미의 개인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바, 당시 사회의 개인과 집단 및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의 가변적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호서지역은 그러한 가변적 관계를 살펴보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지식묘라는 거석묘와 송국리형 묘제를 포함한 비거석묘가 특징적인 시·공간적 분포를 보이며 밀집해 있고(金承玉, 2001; 孫峻鎬, 2002, 2009a), 거석묘와 비거석묘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성과 집단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개인성과 집단성 및 거석묘와 비거석묘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 분석에 적합한 해석틀을 수립할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이 지역 무덤에 개인성과 집단성이 표상된 방식이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후,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일상관행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개인성, 집단성, 그리고 무덤

청동기시대 사회변동 연구에서 당연한 것으로 암묵적·명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개인주의를 과거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투영하는 대신, 개인과 집단 및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의 가변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일련의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구분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Fowler, 2004; Hodder, 2003: 7; Kim, J-I, 2002a: 18-9; Meskell, 1999: 9-10; Tarlow, 2002: 26-7; Thomas, 2004: 139-140; Wilkie and Bartoy, 2000: 771). 한 집단의 구성원 각각은 개별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신체적인 차이에서부터

1) 본고에서는 송국리유형 단계를 중기로, 그 이전 시기를 전기로 구분한다.

욕망과 역량에 있어서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각자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개인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개인성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지만, 그러한 개인성이 인지 또는 감지되는 방식과 개인성에 부여되는 가치는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Fowler, 2004). 따라서 개인성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는 여러 형태를 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와 같이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개인주의는 19세기 이후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일 뿐이다(Hodder, 2003: 7; Thomas, 2004: 139-140).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김종일(2006a)은 사회변동 과정 연구에서 집단을 일반 개개인으로 구성된 수동적 배경으로 여기거나, 집단 구성원들과 분리하여 우두머리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대신, 개인과 집단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집단은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로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참조되는 매개물이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의 일부이고, 동시에 그 개인들에 의해 형성·유지·변화·해체될 수 있는 산물이다(김종일, 2006a: 57, 65). 여기서 집단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또는 반드시 면대면(face-to-face)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라 해도 여러 개인들이 나름의 소속감을 느끼는 사회적 무리 또는 단위를 일컫는다(Yaeger and Canuto, 2000). 이에는 성별·연령·과업 집단에서부터 가구, 공동체, 정치체, 종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격과 규모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집단성은 여러 개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성질 중 특정 맥락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집단주의란 개인성보다는 집단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 또는 개인성과 집단성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물질자료들 중에서도 무덤, 특히 거석묘와 비거석묘를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무덤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진 유럽 선사고고학에서 거석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성보다는 집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 번째는 거석묘 축조에 대규모의 집단적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럽 신석기시대의 대규모(석축 또는 토축) 봉분묘 중 매장주체부에 여러 개체의 인골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안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Barrett, 1994: 49;

Shanks and Tilley, 1982; Thomas, 1991a; Tilley, 1984). 이에 비해 부장품이 풍부한 비거석 개인묘는 장거리 교역을 통해 획득한 위신재와 의례적 상징물을 사용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 실제 존재하는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불평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강조하여 불평등의 재생산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Shennan, 1982: 156). 이러한 거석묘와 비거석묘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여 브래들리(Bradley, 1984: 74)는 거석묘는 개인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숨기고 개인묘는 드러낸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존 바렛(Barrett, 1994: 40-41)이 지적하였듯이, 유럽 선사시대 거석묘와 비거석묘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거석묘를 통해 집단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부장품이 풍부한 개인묘를 통해 개인성을 강조하는 전략보다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모델에 근거하여 김승옥(2006)은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거석묘²⁾와 비거석묘의 변화과정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후, 청동기시대 후기 지식묘 사회와 세형동검 사회 구조를 집단 성향과 개인 성향으로 대별해 설명하였다. 안재호(2012)는 묘제를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생계와 묘제의 지역성을 논의하였다. 전기 어느 시점부터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한 이유를 안재호(2012: 41)는 유력개인의 무덤을 사회 재생산적 차원에서 기념물화하고 공동의례를 통해 공동체의 결집을 기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또 지식묘가 유행하였던 사회를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지식묘 축조와 같은 의례에 대규모 노동력을 투자했던 수렵채집경제의 의례 중심 사회로, 비거석묘가 유행하였던 사회를 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의례 대신 농경에 투자하였던 실리적 사회로 대별하였다(安在皓, 2009: 56; 2012: 47-49). 김승옥과 안재호의 견해 모두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넓은 시·공간적 범위에 걸친 자료를 계층화의 진전이나 수렵채집사회와 농경사회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다 보니

2) 호서지역 지식묘는 유럽 거석묘와 달리 대부분 개인묘이고, 호서지역 지식묘의 상석 규모에는 지식묘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金範哲, 2010a: 58-60).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석을 사용하여 지상에 가시적으로 노출되는 상석을 만들었다는 점 자체는 송국리형 무덤을 포함한 비거석묘가 지식묘만큼 축조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지상에 가시적·영구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비거석묘와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한다(*Ibid.*: 58).

한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이 맺었던 관계나 개인성과 집단성에 부여된 가치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金範哲, 2010b; 金範哲·朴姓煥, 2012; 金承玉, 2001; 孫峻鏞, 2002, 2009a; 이형원, 2009; 황재훈, 2009)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지적된다.

무덤에서 관찰되는 변이를 곧바로 사회적 계층 차이와 연결시키는 기존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김종일이 여러 논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김종일, 2004, 2006b, 2007; Kim, J-I, 2002b, 2004). 이와 함께 김종일은 여러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계층화 이외에도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Ibid.*). 그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남한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친 물질문화의 상징적 구조 변화과정을 집단성에 비해 개인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로 해석한 연구이다(Kim, J-I, 2004). 그에 따르면, 전기에는 소규모 취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적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다가, 중기에는 공동체성이 강조된 환호나 목책 취락과 함께 묘지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우두머리의 헤게모니적 권력이 증대되고, 그 결과 후기에는 공동체 성원들 간의 평등성이나 공동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여타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우두머리의 개인적 정체성과 권력을 무덤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다고 한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주는 논고이기는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일련의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남한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자료 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관련 자료의 통시적·공시적 관계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도 일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 위와 같은 상징적 구조에서의 변화가 어떠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맥락에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을 통한 개인성과 집단성 연구뿐만이 아니라 무덤 연구 일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방법론상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무덤자료의 최종적 분포상에만 관심을 두어 그 형성과정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무덤과 무덤의 공간적 분포상은 일회적

사건으로 한 번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에서 여러 시·공간적 수준에 걸쳐 상호작용한 행위자들 간의 승인, 경쟁, 협상 과정을 통해 남겨진 것이다(김권구, 2005: 183, 235-236; 김종일, 2007: 159; 禹延延, 2012; Chapman, 2000). 이러한 행위가 누적된 결과로서 남겨진 무덤자료를 통해 당시 행위자들의 전략과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무덤축조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선택이 내려진 부분, 즉 무덤들 사이의 참조(reference)관계 또는 새 무덤 축조시 기존 무덤이나 기존 무덤의 속성에 대한 고려 여부 및 그 구체적인 고려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필자가 별도의 논고(禹延延, 2012: 34-35)를 통해 제시하였듯이, 선사시대 소규모 사회에서 다른 유구들과 가시적으로 구분되어 특정 장소에 군집해 있는 유구들은 당시 행위자들이 습관적 또는 전략적으로 서로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물적 매체이자 그러한 구분 짓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일, 2004; Chapman, 2000; Srensen, 2000; Woo, 2009). 이러한 사회에서 무덤들끼리의 공간적 근접성은 혈연적·사회적 근접성을 나타내고(金承玉, 2001: 62), 특정 무덤군에 속해 그 무덤군의 축조 규칙을 따르고 있는 무덤은 무덤 피장자나 그를 통해 표현되는 범주의 개인성보다는 집단의 전통이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Chapman, 2000: 188). 또 금강 중하류역 송국리형 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필자의 또 다른 논고(禹延延, 2011: 39, 42)에서 논의되었듯이, 무덤 '전통'은 일정한 규칙과 코드로 구성된 심각한(serious) 의미의 구조로서(Barrett, 1994; Tilley, 1990) 기존 전통에 대한 인간 행위자들의 습관적·전략적 참조방식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사회에서의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한 유적 또는 한 지점 내 분포하는 무덤들 사이의 긍정적·부정적 참조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무덤 간 공유되는 무덤축조 전통이

3) 기존 무덤 또는 기존 무덤의 속성에 대한 정보가 과연 당시의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 공유되거나 전해졌는지, 그랬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정보 전달이 일어났는지는 본고의 주제와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논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다만 한 유적 또는 한 지점에서 발견된 복수의 무덤들 사이에 일정한 무덤 축조 규칙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관련 행위자들 간 여러 물질적·비물질적 매체를 통해 그러한 정보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개별 무덤 간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그러한 전통이 형성되었는지, 또 그러한 전통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무덤 간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 그 결과를 같은 지역과 시기의 일상관행과 비교하여, 개인성과 집단성이 무덤을 통해 표상된 방식이 일상관행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I. 호서지역 거석묘와 비거석묘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비거석묘로는 (판석)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로 구성되는 송국리형 묘제(金承玉, 2001) 외에도 구획묘(忠北大學校博物館, 1996)와 주구(할석/판석)석관묘(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忠淸文化財研究院, 2004a, 2008c)가 있다. 이 중 '할석석관묘'는 할석이나 천석을 가로로 놓혀 쌓아 벽을 만든 것으로서 기존에 '석곽묘'로 구분되던 것인데, 역사시대 무덤의 '관'과 '곽' 구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관묘'로 구분하고(裴眞晟, 2011: 8), 다만 필요한 경우 판석이나 판석에 가까운 할석을 세로로 세워 벽을 만든 '판석석관묘'와 구분하여 '할석석관묘'로 세분하였다(金範哲, 2010a: 66). 그러나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 중에는 판석과 할석의 중간적 형태를 띠는 석재를 이용한 경우, 판석과 할석을 섞어 만든 경우 등이 다수 있어 판석석관묘와 할석석관묘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 무덤을 크게 상석이 확인된 거석묘인 지석묘와 그 외의 비거석묘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분석 대상 무덤들의 시·공간적 위치와 대략적인 특성을 소개한다.

1. 시·공간적 분포

호서지역 전기와 중기 물질문화는 매우 특징적인 공간적 분포를 보인다(우정연, 2014: 109-110). 먼저 금강상류역(A권)에서는 중기의 송국리유형과 함께 전기의 가락동유형이 주로 발견된다(공민규, 2013). 아산만지역에는 역삼동유형 유적이 밀집해 있는데, 그중에서도 A권과 인접한

표1-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거석묘와 비거석묘

권역	거석묘	비거석묘
A	68기(13.3%)	58기(14.6%)
B-(1)	14기(2.7%)	7기(1.8%)
B-(2)	44기(8.6%)	27기(0.5%)
C-(1)	348기(68.2%)	1417기(35.4%)
C-(2)	36기(7.1%)	190기(47.7%)
총	510기(100.0%)	398기(100.0%)

곡교천 유역B-(1)권에서는 전기에 비해 중기에 유적 수와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송국리유형 중심권과 인접한 삼교천 일대B-(2)권에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중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유적이 형성되었다(羅建柱, 2013; 許義行, 2013). 서해안 남부 일대와 금강 중하류역(C권)에서는 송국리유형이 주로 발견된다(禹姬延, 2010; 李弘鍾, 2002, 2005). 이 중에서도 서해안 일대와 금강 중류 서부에서는 송국리유형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토광형 노가 설치된 (세)장방형 주거지나 공렬토기가 일부 유적에서 발견된다[C-(1)권]. 이와 달리 금강 중류 동부는 전기의 물질문화 요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송국리유형이 밀집해 있는 송국리유형 핵심권이다[C-(2)권].

이러한 호서지역에서는 거석묘⁴⁾와 비거석묘의 출현 양상도 권역에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표1). C-(1)권에서는 거석묘와 비거석묘의 출현율이 모두 높은데, 특히 거석묘의 경우 호서지역 전체 거석묘의 약 70%가 밀집해 있다. C-(2)권에서는 호서지역에서 비거석묘 출현율이 가장 높아 전체 비거석묘의 약 50%가 밀집해 있지만, 거석묘 출현율은 매우 낮다. 이에 반해 B권에서는 거석묘와 비거석묘 모두 호서지역에서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고, A권은 B권과 C권의 중간적인 양상을 보여 거석묘와 비거석묘 출현율이 C권에서보다는 낮지만 B권에서보다는 높다.

호서지역 지석묘와 송국리형 무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김승옥(2001)은 이 지역에서 지석묘와 송국리형 무덤이 공반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금강 상류와 하류에서는 송국리형 무덤의 특성이 지석묘 문화요소와 혼재해 나타나는 것으로

4) 거석묘의 공간적 분포 양상은 박양진(1999)과 하문식(1999)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이들의 연구 이후에 새롭게 조사되어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케이스를 추가하여 파악하였다.

파악하였다. 이후 손준호(2002, 2009a)는 호서지역 지식묘와 송국리형 무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지식묘와, 송국리형 무덤과 주거지를 포함하는 송국리유형의 결합 양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지식묘와 송국리형 주거지가 공반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지식묘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송국리형 무덤이 분포하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송국리형 무덤군에서 지식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이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보령지역에서 발견된 한편, 세 번째에 속하는 유적은 부여와 공주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손준호는 이를 김승옥(2001)이 설정한 송국리문화의 주변지역과 중심지역에 대응하는 지역적 차이로 보았다. 또 손준호(2009a: 154)는 호서지역 지식묘를 휴암리식 주거 단계 또는 선송국리 문화 단계와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황재훈(2009)의 주장에 대해 일부 유적에서의 분포 양상에 근거한 견해일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식묘와 송국리형 주거지가 공반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호서지역 지식묘를 선송국리 문화 단계의 묘제로 한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호서지역 분묘유적 중 발굴조사된 사례는 표2, 도면1과 같다. 무덤 출현율이 높은 C권에서와 달리 A권과 B권에서는 한 유적에서 3기 이상의 무덤이 발견된 경우가 드물고, 특히 B권에는 전혀 없다. 이는 발굴 범위가 한정되어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B권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져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천안 백석동유적(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2000;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c)이나 신방동유적(中央文化財研究院, 2008c), 서산 기지리유적(公州大學校博物館, 2009) 등이 있고, 무덤이 발견된 경우도 한 유적 내 1-2기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무덤축조 관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당시의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지와 분포에 있어, 구릉 정상에 무덤군이 독립적으로 입지하는 경우는 주로 C권, 특히 C-(2)권에서 확인되고, 그에 비해 A권이나 B권에서는 주로 구릉 사면에 소수의 무덤이 산재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취락 내에서 무덤이 발견된 경우, (대다수) 무덤이 주거군이 입지한 곳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사례가 A권, B권, C-(1)권에서 확인되지만, C-(2)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부장품은 지식묘와 비거석묘 모두에서 빈약하다(金承玉, 2001; 孫峻鎬, 2009a; 禹延延, 2011).

표2-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분묘유적

권역	연번	유적	지석묘	비거석묘	입지	분포	취락 내 무덤의 입지	추정연대 ⁵⁾ (BC)	출전
A	1	청주 비하동 2006		1	정상	거리	주거군 상부	14-13C, 9C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b
	2	청주 비하동 2008		2	사면	단독	주거지 옆	12-10C, 8-4C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3	청주 가경동 2006		2	사면	거리	주거군 하부	8C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a
	4	청주 봉명동		1	사면	단독	주거군 하부	12-9C, 7-6C	忠北大學校博物館 2004
	5	청원 황탄리		6	정-사	거리	주거군과 독립	6C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1b
	6	청원 아득이	1	4	평지	열상	-	-	忠北大學校博物館 1979
	7	연기 옹호리		1	사면	단독	주거군 하부	11-10C	國防文化財研究院 2012
	8	연기 송원리	2		정상	단독	독립 구릉	12-8C	韓國考古環境研究所 2010
	9	대전 신대동		1	사면	단독	구릉 반대편	10-9C	성정용 1997
	10	대전 비래동	3		정/사	단독	-	10C	성정용 1997
	11	대전 상대동 중동골·양촌		19	정상	소군집	주거지와 인접/독립	12-10C, 8-5C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12	대전 상대동 원골		7	정상	군집/단독	주거지 주변	10-9C	中央文化財研究院 2011a
	13	대전 용계동		4	정상	거리	주거지 주변	12-10C	中央文化財研究院 2011b
	14	대전 원신흥동		2	정상	군집	주거군 상부	12-9C, 8-5C	忠淸文化財研究院 2010a
	15	대전 추목동	1	1	평지	열상	-	-	忠淸文化財研究院 2004b
	16	대전 궁동		2	사면	?	-	13-11C, 7-5C	忠南大學校博物館 2006
	17	대전 와동		1	?	?	-	-	文化財管理局 1977
	18	대전 가오동	1		정상	단독	-	11-9C	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 빈칸은 '0기'를, 물음표는 '불명'을,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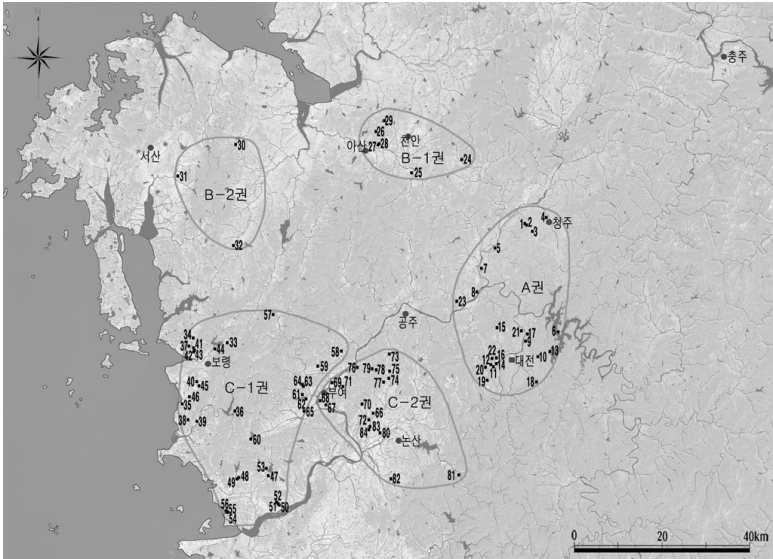
권역	연번	유적	지 석 묘	비 거 석 묘	입지	분포	취락 내 무덤의 입지	추정연대 (BC)	출전
	19	대전 대정동	3	1	사면	거리	-	8-7C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2b
	20	대전 복룡동		1	정상	단독	주거군 상부	8C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a
	21	대전 용산·탑립동		1	사면	단독	주거군 하부	12-10C, 8-6C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b
	22	대전 장대동		2	사면	단순 군집	주거군 하부	-	忠清南道歷史文化院 2006c
	23	공주 제천리		3	사면	단순 군집 /단독	주거지 사이 /위 중복	-	忠清南道歷史文化院 2007
B- (1)	24	천안 윤전리		1	사면	단독	주거군 하부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4a
	25	천안 용정리		1	사면	단독	주거군 하부	10C	忠清文化財研究院 2008a
	26	아산 명암리 박지므레		1	사면	단독	주거지에 의해 중복됨	11-10C, 8-5C	忠清南道歷史文化研究院 2011
	27	아산 용두리 진터		2	사면	거리	주거군 하부	10-9C, 8-5C	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28	아산 용두리 용머리		1	사면	단독	주거지 위에 중복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9a
	29	아산 덕지리		1	정상	단독	주거군 상부	-	忠清南道歷史文化院 2006b
B- (2)	30	당진 자개리 2006		1	사면	단독	주거지 사이	9-6C	忠清文化財研究院 2006a
	31	서산 반양리	1		사면	단독	-	-	李南奭 1987
	32	홍성 남장리 2010		1	사면	단독	구릉 반대편	-	忠清文化財研究院 2010b
C- (1)	33	보령 의평리		1	사면	단독	-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9b
	34	보령 관산리		3	정상	단순 군집	주거군 상부	9-8C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1996
	35	보령 관당리		7	정상	군집/ 거리	-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b

권역	연번	유적	지석묘	비거석묘	입지	분포	취락 내 무덤의 입지	추정연대 (BC)	출전
	36	보령 평라리	3	18	평지	열상	-	-	忠北大學校博物館 1996
	37	보령 주교리	1		사면	단독	주거지 위에 중복	11-9C, 7C	高麗大學校埋藏 文化財研究所 2004b
	38	보령 죽청리 '가'	1		사면	단독	주거지 옆	5-4C	韓國文化財保護財 團 2000a
	39	보령 노천리	6	2	평지	군집/ 단독	-	-	韓國文化財保護財 團 2000a
	40	보령 소송리 '가'	3		사면	단순 군집	-	-	韓國文化財保護財 團 2000a
	41	보령 관창리	3		사면	단독	-	-	李南奭 1987
	42	보령 관창리A	1	14	구릉	열상	-	-	亞洲大學校博物館 · 高麗大學校埋藏 文化財研究所 1999
	43	보령 관창리B		5	사면	단독	주거지 사이	8-7C	高麗大學校埋藏 文化財研究所 2001a
	44	보령 화산동	8		평지	열상	-	-	忠淸埋藏文化財研 究院 1999
	45	보령 달산리	5		사면	열상	-	-	韓國文化財保護財 團 2000a
	46	보령 양기리	12		사면	소군집	-	-	韓國文化財保護財 團 2000a
	47	서천 이사리	9	5	정상	단순 군집	-	-	高麗大學校考古環 境研究所 2005
	48	서천 오석리 오석산		1	사면	단독	-	-	忠淸文化財研究院 2008c
	49	서천 오석리		26	정상	군집	주거군 상부	-	公州大學校博物館 1996
	50	서천 추동리 I		8	정/사	소군집 /단독	주거지 사이	9-7C	忠淸文化財研究院 2006c
	51	서천 추동리 II		1	사면	단독	주거군 상부	-	忠淸文化財研究院 2006d
	52	서천 추동리 III		10	정상	군집/ 단독	주거지와 독립	8C	忠淸文化財研究院 2008d

권역	연번	유적	지 석묘	비 거석묘	입지	분포	취락 내 무덤의 입지	추정연대 (BC)	출전
	53	서천 봉선리 2005		12	사면	군집	주거군 사이	10-8C	忠清南道歷史文化 院 2005
	54	서천 옥남리 갓재골		1	사면	단독	주거군 하부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8e
	55	서천 옥남리 원개들		1	사면	단독	-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8e
	56	서천 옥남리 우아실		2	사면	거리	주거지 상부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8e
	57	청양 장승리		3	사면	군집	-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4c
	58	청양 학암리 2006		2	사면	단독	주거지 부근	8-6C	忠清南道歷史文化 院 2006a
	59	청양 분항리		6	사면	소군집	주거군 사이/하부	-	忠清南道歷史文化 院 2006a
	60	부여 신안리		5	사면	거리	주거지 반대편	9C	高麗大學校考古環 境研究所 2006
	61	부여 나복리		11	정/사	군집	주거군 상부/하부	9C, 7C	忠清南道歷史文化 院 2004
	62	부여 석우리		1	사면	단독	주거지 옆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8b
	63	부여 기중리 가좌		3	사면	단순 군집	주거지 옆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6b
	64	부여 기중리 산직리		2	정상	종렬	주거군 상부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6b
	65	부여 송학리 '나'		1	사면	단독	-	9C	高麗大學校考古環 境研究所 2006
C- (2)	66	부여 산직리	2		사면	거리	-	-	부여문화재연구소 1993
	67	부여 중정리		6	정상	군집	-	-	姜仁求 2000b
	68	부여 동남리		6	사면	군집	-	-	忠南發展研究院 2004
	69	부여 정동리		2	정상	단순 군집	-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5
	70	부여 송곡리		16	정/사	열상/ 단독/ 단순	주거군 상부/주변	9-8C	國立中央博物館 1979·1986· 1987,

권역	연번	유적	지석묘	비거석묘	입지	분포	취락 내 무덤의 입지	추정연대 (BC)	출전
						군집			國立公州博物館 1993, 金吉植 1998, 國立夫餘博物館 2000, 한국전통문화대학 교고고학연구소 2011
	71	부여 가증리		5	정상	열상	-	-	有光教- 1959
	72	부여 비당리		1	구릉	단독	-	-	李揆山 1977
	73	공주 산의리		36	정상	열상/ 단독	독립 구릉	-	公州大學校博物館 1999
	74	공주 인영리 새터		8	정상	군집	주거군 상부	8-6C	忠淸埋藏文化財研 究院 2003
	75	공주 장선리		2	정상	단순 군집	주거군과 독립	8C	忠南發展研究院 2003
	76	공주 분강·저석리		8	정상	군집	-	-	公州大學校博物館 1997
	77	공주 남산리		27	정/사	열상	-	-	尹武炳 1987
	78	공주 삼각리		6	정상	열상	-	-	金永培 1977
	79	공주 송학리		2	구릉	?	-	-	鄭聖喜 1991
	80	논산 원봉리	1		구릉	단독	-	-	池健吉 1978
	81	논산 신기리	4		평지	?	-	-	姜仁求 2000a
	82	논산 마전리		39	시면	군집	주거군과 독립	8-5C	高麗大學校埋藏文 化財研究所 2002a·2004a
	83	논산 원북리		6	정상	군집	주거군과 독립	10-8C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84	논산 원남·정지리		14	정상	군집	주거군과 독립	8-5C	忠淸南道歷史文化 研究院 2012

5) 발굴보고서에 제시된 절대연대측정치의 최대 중복 범위에 근거하여 추정된 연대이다



도면1-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분묘유적 분포도

호서지역 무덤의 절대연대가 측정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⁶⁾, 취락 내에서 무덤과 공반된 유구의 절대연대 측정치를 통해 볼 때는 기원전 13-12세기에 이르는 A권 유적의 상한연대가 기원전 10-9세기에 이르는 B권이나 C권 유적의 상한연대보다 이르다(표2).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무덤과 공반된 유구의 절대연대일 뿐 무덤의 축조시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호서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지석묘 중에는 상석이 이동되거나 하부구조가 훼손된 경우가 많고(孫峻鎬, 2009a: 140), 송국리형 묘제를 포함한 비거석묘에 대해서는 송국리유형 중심권과 주변권 사이의 공간적·시간적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호서지역 무덤에 대해 체계적인 편년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신 부장품의 시기를 통해 무덤의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출토된 부장품의 대부분은 중기에 해당하고, 그 상한이 중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장품이 출토된 무덤은 표3과 같다.

무덤 출현율이 매우 낮은 B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역에서 중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무덤이 확인되었는데, 이에는 토광묘, 할·판석석관묘, 주구할·판석석관묘,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로 쓰인 할·판석석관

6) 논산 마천리유적 옹관묘 KO-002호의 절대연대가 측정된 경우가 유일한데, 그 중심연대는 기원전 7세기이다.

표3-중기 이전 유물 출토 무덤

권역	유적	유구	무덤 종류	입지	분포	부장품
A	청원 황탄리	KM-401호	할석석관묘	정상	무덤군의 최상부	이단병검, 삼각만입촉15, 마연토기편
	연기 용호리	1호	할석석관묘	사면	단독	마연토기편
	대전 신대동	1호	할석석관묘	사면	단독	유혈구이단병검, 이단경촉3, 삼각만입촉10, 마연토기편
	대전 비래동	1호	지석묘의 할석석관묘	사면	무덤군 하부	동검, 마연토기, 삼각만입촉5
B-(1)	천안 운전리	1호	주구판석 석관묘	사면	주거군 하부 단독	대부소호
C-(1)	보령 관창리A	3호	할석석관묘	사면	열상 무덤군 가장자리	유절병검편
	서천 오석리 오석산	1호	주구할석 석관묘	사면	단독	동검, 이단경촉3, 미완성촉1, 관옥11
	서천 오석리	25호	할석석관묘	정상	단독	이단경촉2
C-(2)	부여 송국리	5호	판석석관묘	정상	열상 무덤군 내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부여 가증리	3호	판석석관묘	정상	열상 무덤군 내	유절병검, 일단경촉3
	공주 남산리	A18호	토광묘	정상	열상 무덤군 가장자리	유절병검
	공주 삼각리	? ⁷⁾	판석석관묘	정상	열상 무덤군	보습
	논산 원봉리	1호	지석묘의 판석석관묘	구릉	단독	유절병검, 일단경촉3

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무덤이 포함된다(표3). 이 중 C-(1)권의 보령 관창리A유적, C-(2)권의 부여 송국리·가증리·남산리, 논산 원봉리 유적 무덤에서는 유절병식 석검이 출토되었다. 손준호(2006: 73-74; 2009b: 8-10)는 출토 유구와 공반 유물의 시기를 통해 유절병식 석검을 중기로 편년하였지만, 자신의 같은 논문에 제시된 단양 평동리 출토품처럼 삼각만입촉과 공반되거나, 제천 황석리유적 지석묘 출토품처럼 이단 경촉과 공반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유절병식 석검의 상한이 중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⁸⁾이 있다(安在皓, 2012: 55). 한편

7) 보고서에 유구 번호는 제시되지 않았다.

8) 이는 형식학적으로 유절병식이 단순 일단병식에 선행하여, 송국리유형 유물만 발견된 무덤이나 유적보다 그 상한이 올라갈 가능성, 아마도 전기와 중기의 전환기에 해당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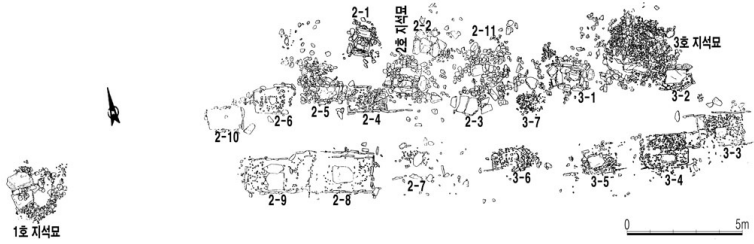
A권의 연기 용호리유적에서 발견된 무덤은 전기 주거지와만 공반되고, 무덤에서 출토된 마연토기가 동일 유적 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된 마연토기와 같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전기로 볼 수 있다(許義行, 2013: 181). 또 C-(2)권의 공주 삼각리유적 무덤에서 출토된 석제 보습은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기종이지만, 여주 혼암리유적(서울대학교박물관, 2004)에서와 같이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에서 확인된 경우도 소수 있으므로(裴眞晟, 2007: 123), 이 석제 보습이 출토된 무덤은 중기 유물만 출토된 무덤보다 시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禹姬延, 2010: 161-162).

2. 지식묘

호서지역에서는 500기 이상의 지식묘가 지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지만(표1), 이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식묘 수는 69기에 지나지 않는다(표2).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식묘 유적 중, 한 지점에서 5기 이상의 지식묘가 발견된 경우는 C-(1)권에 한정되고, 그 외 권역에서는 한 지점에 5기 미만의 지식묘가 소수 분포한다. 매장주체부가 확인된 경우는 A권의 청원 아득이유적과 대전 비래동유적, C-(1)권의 보령 평라리·노천리·소송리 '가'·달산리, 서천 이사리 유적, C-(2)권의 논산 신기리유적 지식묘뿐이다. 이처럼 매장주체부가 발견된 지식묘의 수가 드문 이유는 후대에 상석이 이동되면서 매장주체부가 파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당시에 지식묘가 제단이나 묘표석으로 쓰여 애초 매장주체부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李榮文, 2002: 233). 원래부터 매장주체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식묘를 통해서는 피장자 개인의 정체성이나 피장자가 처리된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표상되는 범주나 이미지보다도 지식묘 축조에 협력한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호서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지식묘의 다수가 단독으로 분포하고, 한 지점에 여러 기가 함께 분포하는 경우라 해도 서로에 대한 일정한 참조관계 없이 단순히 서로 거리를 두고 불규칙하게 분포한다.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로서, A권의 대전 비래동유적에서는 3기의 지식묘가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매장주체부로 할석석관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유절병식은 전기에, 단순 일단병식은 중기에 속한다는 뜻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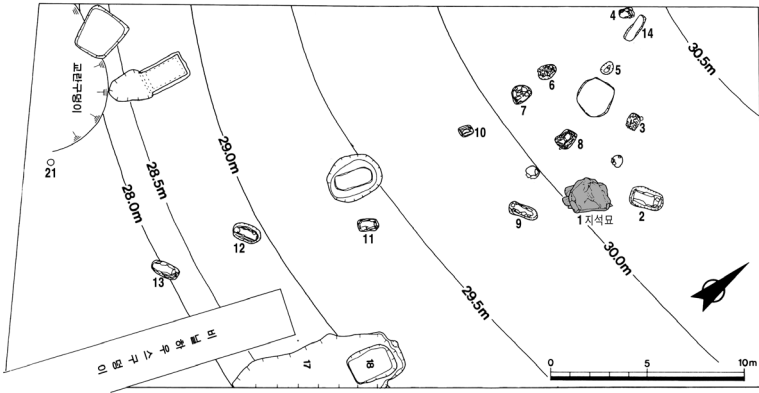


도면2-평라리유적 무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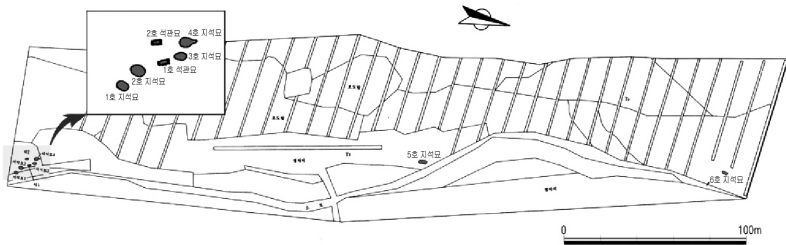
가 쓰이고 마연토기가 부장품으로 매납되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또 A권의 청원 아득이유적과 대전 추목동유적, C-(1)권의 보령 화산동·달산리·평라리·관창리A·노천리 유적에서는 열상배치를 통한 무덤 간 참조관계가 발견된다. 이들 중 지석묘만 여러 기 발견된 보령 화산동과 달산리 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에서는 지석묘와 비거석묘가 함께 열배치를 이루고 있는데, 청원 아득이유적에서는 지석묘가 열상을 이루는 무덤군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다른 무덤의 위치 결정에 공통적으로 참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볼 것처럼 지석묘와 비거석묘가 함께 열배치를 이루고 있는 유적의 모든 지석묘가 유적 내 나머지 모든 무덤의 축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참조된 것은 아니다.

보령 평라리유적(도면2)에서는 3기의 지석묘가 18기의 비거석묘와 함께 평지에 분포한다. 이 중 1호 지석묘는 유적의 가장 서쪽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그 동쪽에 나머지 지석묘와 비거석묘들이 1호 지석묘와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면서 두 열로 나누어져 배치되어 있다. 지석묘 2호와 3호는 북쪽 열에 속해 있는데, 2호는 열의 중간에, 3호는 열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이러한 분포 상황을 통해 볼 때, 1호 지석묘 동쪽에 나누어져 있는 두 열은 1호 지석묘를 공통적으로 참조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쪽 열 무덤 중, 서로 연결하여 정연하게 열을 이루고 있는 비거석묘에 비해 2호와 3호 지석묘는 상대적으로 열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북쪽 열 형성과정에서 2호와 3호 지석묘가 같은 열의 비거석묘 축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참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령 관창리A유적(도면3)에서는 지석묘 1기가 14기의 비거석묘와 함께 구릉 사면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중 11기(1호-10호, 14호)는 유적의 북부에서 세 종렬을 이루고 있고, 이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3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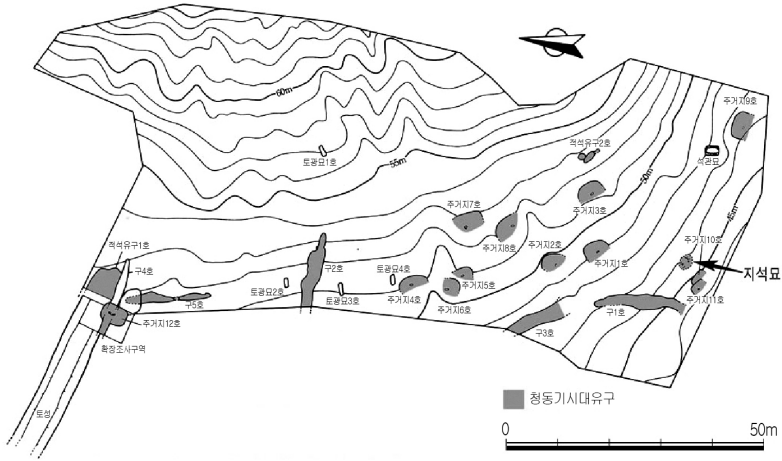
도면3-보령 관창리아유적 무덤 분포도



도면4-보령 노천리유적 무덤 분포도

무덤(11호-13호)이 남부에서 종렬을 이루고 있으며, 옹관묘 1기(21호)가 유적 남부 가장자리에 단독으로 위치한다. 지석묘(1호)는 유적의 동쪽 가장자리 옆에 속하고, 이 옆 무덤 중 북쪽에서부터 두 번째에 위치한다. 서로 같은 장축방향을 따르고 있는 2호와 9호 석관묘가 각기 지석묘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므로, 이들의 위치는 지석묘를 공통적으로 참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적 북부에 있는 다른 열의 무덤들은 각 열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비거석묘를 참조하여 그 뒤에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종렬 배치되었으므로, 1호 지석묘가 유적 전체의 비거석묘 축조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참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보령 노천리유적(도면4)은 평지에 입지하는데, 5호와 6호 지석묘가 각기 단독으로 분포하고, 그와 거리를 두고 1호-4호 지석묘와 1호-2호 석관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 무덤군에서는 석관묘가 중앙에 위치하고 지석묘가 그를 중심으로 열상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유적에서는 오히려 석관묘가 지석묘의 위치 결정에 참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5-보령 죽청리 '가' 유적 유구분포도

이러한 보령 평라리·관창리A·노천리 유적에서의 지식묘와 비거석묘의 분포 양상을 고려할 때, 무덤 간 참조관계 형성에 있어 지식묘가 비거석묘보다 반드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대전 추목동유적에서는 지식묘 1기와 석관묘 1기가 평지에서 종렬을 이루고 있어 어느 무덤이 어느 무덤의 위치 결정에 참조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지식묘가 취락 내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A권의 연기 송원리유적, C-(1)권의 보령 주교리와 죽청리 '가' 유적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 지식묘가 취락 내 다른 유구들과 다른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만일 양자가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다면 그 경우 취락 형성과정에서 지식묘가 그리 중요하게 참조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연기 송원리유적에서는 2기의 지식묘가 주거군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구릉 정상부에 독립적으로 입지하여 취락 전체 집단에 관련된 중요한 기념물로 여겨졌을 수 있다. 그러나 보령 주교리와 죽청리 '가'(도면5) 유적에서는 각 1기의 지식묘가 주거군 내에서 주거지 위에 중복되어 있거나 주거지 옆에 입지한다. 이 유적들에서 지식묘는 취락 전체 집단과 관련되기보다는 취락 내 특정 주거(군) 집단과 관련된 기념물로서 축조되었는데, 그러한 기념물 축조가 다른 주거(군) 집단에 의해 용인되기는 하지만 그를 연속적으로 참조하여 지식묘군을 형성한다거나 또는 경쟁적으로 참조하여 별도의 곳에 또 다른 지식묘를 축조할 만큼 취락 전체

집단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식묘가 취락이 폐기되고 난 이후에 축조되었다면 그 취락은 물론 지식묘에 대한 아무런 참조 없이 지식묘와 무관하게 형성되었을 것이다.⁹⁾

3. 비거석묘

대상지역 비거석묘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볼 때, 이 지역 비거석묘는 (1) 무덤 배치, (2) 장축방향, (3) 무덤 형식, (4) 바닥 형식, (5) 무덤 크기, (6) 부장 품목이라는 여섯 가지 속성에서 무덤 간 주요한 차이를 나타낸다(金範哲·朴姓煥, 2012; 金承玉, 2001; 禹姬延, 2011).¹⁰⁾ 이 중 3기 이상의 비거석묘가 균집을 이루는 유적이 C권에서는 다수 발견되었지만, B권에서는 전혀 발견된 예가 없고, A권에는 청원 황탄리와 아득이, 대전 용계동, 상대동 중동골·양촌 및 원골 유적이 있을 뿐이다. A권과 C권의 이 유적들은 무덤군을 이루는 무덤 간에 공유되는 무덤축조 규칙의 유무와, 무덤 간의 개별적인 차이가 표현되는 방식에 기반하여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표4).¹¹⁾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는 특정 속성(들)을 통해 무덤 간 개별적인 차이가 두세 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그러한 범주가 집단적 전통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적들이 속한다. 이들은 범주화된 차이가 집단적 전통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개별 범주들이 열배치라는 집단적 전통에 위계적으로 종속되어 표현된 그룹 I과 개별 범주들 간 균형관계 유지가 곧 집단적 전통을 구성하는 그룹 II로 세분된다. 이들과 달리 그룹 III에 속한 유적에서는

9) 이 경우 지식묘가 왜 하필 폐기된 취락 내에 축조되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점이기는 하지만 본고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별도의 논고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0) 이와 함께 흔히 '요갱' 또는 '부장갱'이라 불리는, 무덤 바닥면에 설치된 소형 구덩이가 C권을 중심으로 발견된다(金範哲·朴姓煥, 2012: 19). 이러한 소형 구덩이가 설치된 무덤이 한 유적에서 다수 보고된 경우 서로 다른 무덤군에 분산 분포한다는 점 이외에는 다른 속성들과의 조합 양상에 있어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토광의 구조, 벽석과 바닥석의 형태, 관 덮개의 종류, 옹관의 안치방식 등에 따른 변이가 관찰되지만(金承玉, 2001; 金範哲·朴姓煥, 2012), 이들에 대해서는 유구의 불량한 보존상태 등의 이유로 여러 무덤 간·유적 간 연속적이고 일관적인 비교가 어렵다(禹姬延, 2011: 42). 이에 본고에서는 위 여섯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이하에서 '(1)-(6)'은 위 여섯 가지 속성을 그 순서대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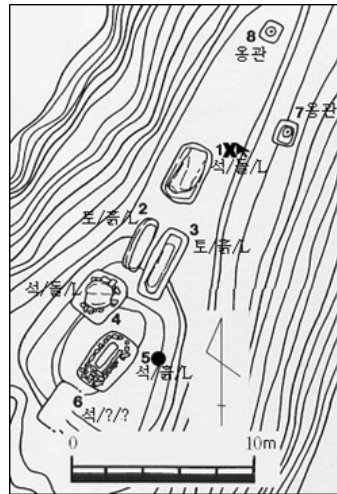
11) 이들 중 금강 중하류역 무덤의 전통과 변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논고(禹姬延, 2011)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표4-비거석묘에 나타난 전통과 변이

그룹	전통	개별적 변이	유적
I	열배치	규칙적·반복적: 집단적 전통에 포섭	C-(2)권: 부여 송국리·가흥리, 공주 남산리·삼각리
II	균형	규칙적·반복적: 집단적 전통과 상호 구성적	C-(1)권: 보령 관창리A, 서천 오석리·추동리III, 청양 분항리, 부여 나복리 C-(2)권: 부여 등남리, 공주 산의리·안영리 새터, 논산 마전리·원북리
III	다양	불규칙적·일회적	A권: 청원 횡탄리·아득이, 대전 용계동·상대동(원골) C-(1)권: 보령 관산리·관당리·평리리, 서천 봉선리, 청양 장승리, 부여 신안리·가흥리(가좌) C-(2)권: 공주 분강·저석리, 논산 원남·정지리

유적 내 무덤 간 일정한 특성이 공유되기는 하지만 무덤 간의 개별적인 차이는 불규칙하고 일회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I그룹(표5)에 속하는 부여 송국리유적 52지구 분묘군(A군)에서는 석관묘 4기, 토광묘 2기, 옹관묘 2기가 발견되었다(도면6). 이들 중 석관묘와 토광묘는 열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1호묘를 참조하여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종렬배치를 이루고 있고, 옹관묘는 1호묘 주변에 분포한다. 이와 함께 종렬 내에서는 돌바닥과 흙바닥이 교대로 출현한다. 부여 가흥리유적에서는 석관묘만 5기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고, 단독으로 입지한 1기를 제외한 나머지 4기는 종렬을 이룬다. 이 5기의 석관묘에서는 돌바닥과 흙바닥이 교대로 출현하고, 돌바닥과 흙바닥 조합으로



도면6-송국리유적 52지구 분묘군¹²⁾
(禹延延 2011: 47의 도면4 전제)

12) 도면6과 도면7에서 '석'은 석관묘를, '토'는 토광묘를, '돌'은 돌바닥을, 'L'은 대형을, 'M'은 중형을, 'S'는 소형을, 'X'는 석검을, 'ㄱ'는 석촉을, '●'는 무문토기를, '?'는 불명확함을 나타낸다.

표5-1 그룹 유적의 전통과 변이

권역	유적	무덤군	유적/무덤군 전통	무덤(군) 간 차이
C- (2) 권	부여 송국리	A군(1호-6호, 옹관묘 1호와 2호), B군(7호-9호), 단독(10호, 옹관묘 3호-6호)	(1) A군에서는 종렬배치, B군에서는 단순군집; (2) A군에서는 동일한 장축방향; (3) B군에서는 모두 토광묘; (4) A군에서는 돌바닥과 흙바닥 교대, B군에서는 모두 흙바닥; (5) A군에서는 모두 대형	(2) B군에서는 상이한 장축방향; (3) A군에서는 석관묘 4기, 토광묘 2기, 옹관묘 2기; (5) B군에서는 중형 1기, 소형 1기, 불명 1기; (6) A군에서는 동검+동착+석검+석촉+관/곡옥 부장묘 1기와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B군에서는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부여 기증리	A군(1호-4호), 단독(5호)	(1) 종렬배치; (2) 동일한 장축방향; (3) 모두 석관묘; (4) 돌바닥과 흙바닥 교대; (5) 모두 중형; (6) 모든 무덤에서 석검/석촉	
	공주 남산리	A군(A1호, A2호, A8호), B군(A3호-A7호), C군(A9호-A11호), D군(A13호-A15호, A18호), E군(A16호, A17호, J1호), F군(B1호-B3호), G군(C1호-C3호, J2호), 단독(A12호, J3호)	(1) 무덤군 간 종렬배치와 병렬배치 교대; (2) 무덤군 간 수직적 장축방향; (3) A군, B군, C군, G군에서는 모두 토광묘; (4) 모두 흙바닥; (5) 무덤군 내 2개 범주의 무덤 크기	(3) D군에서는 석관묘 1기와 토광묘 3기, E군에서는 토광묘 2기와 옹관묘 1기, F군에서는 석관묘 1기와 토광묘 2기, G군에서는 토광묘 3기와 옹관묘 1기; (6) D군에 석검 부장묘 3기, G군에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공주 삼각리	A군(1호-6호)	(1) 종렬배치; (2) 동일한 장축방향; (3) 모두 석관묘; (4)-(5) 불명	(6) 세 가지 범주의 부장 품목

이루어진 각 쌍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부장품 양과 바닥 형식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어, 돌바닥 무덤에서 보다 많은 수의 석검과 석촉이 발견된다. 공주 남산리유적에서는 종렬을 이루고 NS 장축방향을 따르는 무덤군과 횡렬을 이루고, EW 장축방향을 따르는 무덤군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또 각 무덤군 내의 무덤은 그 크기에 있어 대형과 중형 또는 중형과 소형이라는 2개의 범주로 구분된다.¹³⁾ 공주 삼각리유적에서

는 6기의 석관묘가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종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부장품, 즉 무기 또는 사냥도구인 석검과 석촉, 생산도구인 보습과 석재, 생활도구인 무문토기가 각 2기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처럼 I 그룹 유적들에서는 특정 속성(들)이 규칙적·반복적으로 이용되어 표현된 두세 개의 범주가 발견되는데, 개별적으로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무덤들이 공통적으로 무덤군 내 '무덤간 열배치+동일한 장축방향'이라는 무덤축조 전통을 따르고 있다.



도면7-서천 오석리유적 묘지(禹延延 2011: 54의 도면7 전제)

II 그룹(표6) 유적 중 서천 오석리유적 묘지(도면7)에 있는 6개의 무덤군은 각 무덤군이 2개의 하위 범주로 세분되는 3-4기의 무덤들로 구성되는데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그러한 하위 범주를 형성하는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조합되는 방식에는 무덤군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禹延延, 2011: 53-55). 이 6개의 무덤군은 묘지의 북서부에서 주로 EW 장축방향을 따르는 3개의 무덤군과 묘지의 남동부에서 주로 EW축에서 벗어난 장축방향을 따르는 3개의 무덤군으로 다시 구분되는데, 전자와 후자군에는 석검이 부장된 무덤(2호와 10호)이 1기씩 포함되어 있다(Ibid.). 논산 마천리유적에서는 3-5기의 무덤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무덤형식, 무덤 크기, 부장 품목이 무덤(군) 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가족'의 이미지가 직·간접적으로 표상되어 있다(禹延延, 2011: 51-53). 보령 관창리A유적에서는 유사한 장축방향을 따르는 무덤들끼리 서로 다른 종렬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적의 동쪽 가장자리 옆에는 중형의 흙바닥 석관묘가 군집해 있고, 그 서쪽에는 소형의 돌바닥 석관묘가

13) 호서지역 전-중기 무덤의 매장주체부 크기는 길이 100-150cm와 폭 30-60cm가 중형으로, 그 이상과 이하가 각기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된다.

표6-II그룹 유적의 전통과 변이

권역	유적	무덤군	유적/무덤군 전통	무덤(군) 간 차이
C- (1)권	보령 관창리 A	A군(1호, 2호, 9호, 11호-13호), B군(3호, 5호, 8호, 14호), C군(4호, 6호, 7호, 10호), 단독(21호)	(1) 종렬배치; (2) 무덤군 내 동일한 장축방향; (3) C군에서는 모두 석관묘; (4) A군에서는 모두 흙바닥, C군에서는 모두 돌바닥; (5) C군에서는 모두 소형; (6) C군에서는 모두 부장품 없음	(3) A군에서는 지석묘 1기와 석관묘 5기, B군에서는 석관묘 2기와 토광묘 2기; (4) B군에서는 돌바닥 2기와 흙바닥 2기; (5) A군에서는 중형 4기와 소형 1기, B군에서는 중형 1기와 소형 3기; (6) A군에서는 석검 부장묘 2기와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B군에서는 석검 부장묘 2기
	서천 오석리	A군(1호, 2호, 22호), B군(18호-21호), C군(14호-17호), D군(10호-13호), E군(6호-9호), F군(3호-5호), G군(23호, 옹관), H군(24호와 25호)	(1) 단순군집(군집 내 일부 종렬 또는 횡렬 배치); (2) A군, C군, F군, H군에서는 무덤군 내 동일한 장축방향; (3) A군, B군, C군, F군, H군에서는 모두 석관묘; (4) A군, E군, F군에서는 모두 흙바닥; (6) B군, C군, E군, F군, G군에는 부장품 없음	(2) B군, D군, E군에서는 EW와 비-EW 사이의 이원적 장축방향; (3) E군에서는 석관묘 2기와 토광묘 2기; (4) 돌바닥과 흙바닥(B군-D군); (5) 무덤군 내 2-3개 범주; (6) A군, D군, H군에 석검/석촉 부장묘 1기씩, C군에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서천 추동리 III	A군(2호-10호), 단독(1호)	(1) A군 내 종렬배치와 횡렬배치의 분리; (2) A군 내 수직적 장축방향의 분리; (3) 모두 석관묘; (4) 모두 흙바닥; (5) 모두 중형	(6) A군에 석검 부장묘 1기
	청양 분향리	A군(석관묘 1호와 2호, 옹관묘), B군(석관묘 3호-5호)	(1) 단순군집; (3) B군에서는 모두 석관묘; (4) A군에서는 모두 흙바닥; (5) A군에서는 모두 중형; (6) B군에서는 모두 부장품 없음	(2) 무덤군 내 상이한 장축방향; (3) A군에서는 석관묘 2기와 옹관묘 1기; (4) B군에서는 돌바닥 1기와 흙바닥 2기; (5) B군에서는 중형 1기와 소형 2기; (6) A군에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부여 나복리	A군(1호-9호), B군(10호-11호)	(1) A군 내 종렬배치와 횡렬배치의 분리	(2) 수직적 장축방향; (3) A군에서는 석관묘 4기와 토광묘 5기, B군에서는 석관묘 1기와 옹관묘 1기; (4) A군에서 돌바닥 1기, 나머지는 모두 흙바닥; (5) A군에서 중형 3기와 소형 5

구역	유적	무덤군	유적/무덤군 전통	무덤(군) 간 차이
C- (2)권				기, 나머지는 불명; (6) A군에 석검 부장묘 1기
	부여 동남리	A군(1호, 2호, 옹관묘), B군(3호-5호)	(1) 단순군집; (2) 동일한 장축방향; (3) B군에서는 모두 석관묘; (4) A군에서 는 모두 돌바닥; (5) B군에 서는 모두 중형	(3) A군에서는 석관묘 2기 와 옹관묘 1기; (4) B군에 서는 돌바닥 2기, 흙바닥 1기; (5) A군에서는 중형 1기와 소형 1기; (6) A군 에 석검과 석촉 부장묘 1 기, B군에 무문토기편 부 장묘 1기
	공주 산의리	A군(12호, 26호, 23 호), B군(20호, 19호, 11호, 10호, 8호, 28 호, 27호), C군(14호, 13호, 9호, 7호, 17 호, 16호), D군(1호- 6호, 18호, 22호), E 군(J1호, J3호-J8호), 단독(15호, 21호, 24 호, 25호, J2호)	(1) 열배치	(2) 무덤군 내 수직적 장축방 향; (3) 중심 분묘군에서는 모두 석관묘, 그 외에는 모 두 옹관묘; (4) 무덤군 내 부 분적으로 돌바닥과 흙바닥 교대; (5) 무덤군 내 상이한 무덤 크기 불규칙한 출현; (6) A군에 석촉 부장묘 1기, B군에 석촉 부장묘 1기와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C 군에 무문토기편 부장묘 1 기, D군에 석촉 부장묘 1기 와 무문토기편 부장묘 3기
	공주 안영리 새터	A군(1호-8호)	(1) 종렬배치와 횡렬배치의 교차; (5) 모두 중형(불명 3 기 제외); (6) 부장품 없음	(2) 수직적 장축방향; (3) 석관묘 6기, 토광묘 1기, 옹관묘 1기; (4) 바닥 형식 에 따른 군집
	논산 미전리	A군(10호-14호), B군(6 호-9호), C군(15호, 18 호, J4호), D군(5호, 19 호, 20호, 23호), E군(21 호, 22호, J3호), F군(2 호-4호), G군(24호-26 호), H군(27호-31호, J5호-J8호), I군(16호, 17호, J2호), 단독(1호)	(1) 단순군집(군집 내 일부 종렬 또는 횡렬 배치); (2) B군, C군, E군, F군, G군 에서는 유사한 장축방향; (3) B군에서는 모두 석관묘; (5) B군에서는 모두 중형	(2) A군, D군, H군에서는 수직적 장축방향; (3) B군 을 제외한 모든 무덤군에서 상이한 무덤 형식; (4) 무덤 군 내 상이한 바닥 형식; (5) B군을 제외한 모든 무 덤군에서 2개 범주의 무덤 크기; (6) 총 39기의 무덤 중 20기에서 부장품 출토
논산 원북리	A군(1호-6호)	(1) 종렬 내 소군집; (3) 모 두 석관묘; (4) 모두 흙바닥	(2) 수직적 장축방향; (5) 대형 2기, 중형 1기, 불명 3기; (6) 석검과 석촉 부장 묘 1기와 무문토기편 부장 묘 1기	

군집해 있다. 부여 동남리유적과 논산 원북리유적에서는 한 지점에 밀집해 있는 6기의 무덤들이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3기씩 2개의 소군집을 이루고, 서로 다른 소군집에서 석검/석촉 부장묘 1기와 무문토 기편 부장묘 1기가 대칭적으로 발견된다. 청양 분향리유적에서도 6기의 무덤이 3기씩 군집을 이루는데, 각 군집에서는 무덤 형식, 바닥 형식, 또는 무덤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를 통해 표현된 두세 개의 범주가 확인된다. 서천 추동리Ⅲ유적과 부여 나북리유적에서는 각 유적에서 유일하게 석검이 부장된 무덤을 기준으로 하여, 한편에서는 무덤이 횡렬배치를 이루고 다른 편에서는 종렬배치를 이룬다. 공주 산의리유적에서는 열배치를 이루는 무덤들 중 일부에서 서로 다른 바닥 형식이 교대로 나타난다. 공주 안영리 새터 유적에서는 종렬을 이루는 무덤들과 횡렬을 이루는 무덤들, 장축방향 NS축을 따르는 무덤들과 EW축을 따르는 무덤들이 무덤군 중앙에 위치한 2호묘를 중심으로 서로 교차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Ⅱ그룹 유적에서는 무덤(군) 간 특징적인 속성(조합)을 통해 표현된 상호 대칭적인 두세 개의 범주가 확인되지만, Ⅰ그룹 유적에서와 같이 그러한 범주들이 위계적으로 포섭되는 상위의 전통은 찾아보기 어렵다. Ⅰ그룹 유적에서와 같이 상위의 전통을 일방적으로 참조하는 대신, Ⅱ그룹 유적들에서는 기존 무덤에 비해 돌출적인 속성을 채택하지 않도록 무덤(군) 간 여러 속성을 복합적으로 참조하여, 범주화된 개인성 표현과 집단적 전통 형성이 상호 구성적으로 이루어져 있다(禹姬延, 2011: 55).

Ⅲ그룹(표7)에 속한 유적에서도 다음과 같이 무덤 간 공유되는 일정한 특성이 확인된다. 청원 황탄리유적에서는 돌바닥을 가진 할석석관묘 6기¹⁴⁾가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분포하고, 아득이유적에서는 지석묘 1기와 석관묘 4기가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열배치를 이루고 있다. 대전 용계동유적에서는 석관묘 4기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하고, 상대동 원골유적에는 5기의 옹관묘가 구릉 정상부에 종렬로

14) 이 중 구릉 정상부에 입지한 1호묘에서는 전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 무덤은 공통의 장축방향을 따르는 다른 무덤들과 약간 다른 장축방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1호묘와 다른 무덤들 사이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적 차이 문제와 상관없이 이 유적에서 발견된 6기의 무덤이 모두 돌바닥을 가진 할석석관묘이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한다는 점에서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참조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표7-III그룹 유적의 전통과 변이

권역	유적	무덤군	유적/무덤군 전통	무덤(군) 간 차이
A권	청원 황탄리	A군(KM 401호-404호, 청박 1호와 2호)	(1) 단순군집(서로 거리); (3) 모두 석관묘; (4) 모두 돌바닥	(2) KM-401호를 제외하고 동일한 장축방향; (5) 대형 1기, 중형 3기, 소형 1기, 불명 1기; (6) 석검+석촉+마연토기편 부장묘 1기, 석검 부장묘 1기
	청원 아득이	A군(1호-5호)	(1) 열배치; (2) 동일한 장축방향	(3) 지석묘 1기와 석관묘 4기; (4) 돌바닥 3기와 흙바닥 2기; (5) 대형 1기, 중형 3기, 소형 1기; (6) 석검/석촉 부장묘 2기
	대전 용계동	A군(석관묘 1호-4호)	(1) 단순군집(서로 거리); (3) 모두 석관묘	(2) 상이한 장축방향; (4) 돌바닥 3기, 흙바닥 1기; (5) 중형 3기, 소형 1기; (6) 석검 부장묘 1기
	대전 상대동 원골	A군(옹관묘 1호-5호), 단독(석관묘 1호와 2호)	(1)-(6) 옹관묘 종렬배치, 석관묘 단독분포	
C-(1) 권	보령 관산리	A군(KM 401호-403호)	(1) 단순군집; (2) 동일한 장축방향; (3) 모두 석관묘; (4) 모두 흙바닥; (6) 부장품 없음	(5) 중형 1기와 소형 2기
	보령 관당리	A군(석관묘 A1호-A2호), B군(석관묘 B1호, 토광묘 1호-4호)	(1) A군에서는 종렬배치, B군에서는 중앙의 석관묘 주변에 토광묘 분포; (2) 유사한 장축방향; (3) A군에서는 모두 석관묘; (4) A군에서는 모두 흙바닥; (6) 석검 부장묘 각 무덤군에서 1기	(3) B군에서는 석관묘 1기와 토광묘 4기; (4) B군에서는 돌바닥 2기와 흙바닥 3기; (5) A군에서는 중형 1기와 소형 1기, B군에서는 중형 4기와 소형 1기
	보령 평라리	A군(지석묘 2호와 3호, 구획묘 2-10호, 2-6호, 2-4호, 2-2호, 2-3호, 3-7호, 3-2호, 할석석관묘 2-5호, 2-1호, 2-11호, 3-1호), B군(구획묘 2-9호, 2-8호, 2-7호, 3-6호, 3-5호, 3-4호, 3-3호), 단독(지석묘 1호)	(1) 종렬배치; (2) 동일한 장축방향; (3) B군에서는 모두 구획식판석석관묘; (4) 모두 흙바닥; (6) B군에는 부장품 없음	(3) A군에서는 지석묘 2기, 구획식판석석관묘 7기, 할석석관묘 4기; (5) A군에서는 중형 9기와 소형 5기, B군에서는 중형 6기와 소형 1기; (6) A군에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권역	유적	무덤군	유적/무덤군 전통	무덤(군) 간 차이
	서천 봉선리	A군(1호-8호, 12호), B군(9호-11호)	(1) 단순군집; (3) B군에서는 모두 석관묘; (4) 모두 흙바닥	(2) 각 무덤군 내 수직적 장축 방향 1기; (3) A군에서는 석관묘 8기와 토광묘 1기; (5) A군에서는 중형 5기와 소형 4기, B군에서는 중형 1기와 소형 2기; (6) A군에서는 석검 부장묘 2기와 무문토기편 부장묘 5기, B군에서는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청양 장승리	A군(1호-3호)	(1) 단순군집(군집 내 일부 종렬배치); (2) 동일한 장축방향; (3) 모두 석관묘; (6) 부장품 없음	(4) 돌바닥 1기와 흙바닥 2기; (5) 중형 2기와 소형 1기
	부여 신안리	A군(KM 004호-008호)	(1) 단순군집; (2) 동일한 장축방향; (3) 모두 석관묘; (5) 모두 중형	(4) 돌바닥 1기와 흙바닥 4기; (6)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부여 가중리 가좌	A군(1호-3호)	(1) 단순군집; (2) 유사한 장축방향; (3) 모두 토광묘; (4) 모두 흙바닥; (5) 모두 소형; (6) 부장품 없음	
C- (2) 권	공주 분강· 저석리	A군(1호-4호), B군(7호와 8호), 단독(5호와 6호)	(1) 횡렬배치; (2) 동일한 장축방향; (3) 모두 석관묘; (5) B군에서는 모두 중형	(4) A군에서는 돌바닥 3기와 흙바닥 1기, B군에서는 돌바닥 1기와 흙바닥 1기; (5) A군에서는 중형 3기와 소형 1기; (6) A군에 석검과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B군에 석검 부장묘 1기와 석촉 부장묘 1기
	논산 원남· 정지리	A군(석관묘 1호-4호와 6호, 토광묘 1호), B군(석관묘 5호, 옹관묘 1호-6호), 단독(옹관묘 7호)	(1) 단순군집(군집 내 부분적 열배치)	(2) 무덤군 내 상이한 장축 방향; (3) A군에서는 석관묘 5기와 토광묘 1기, B군에서는 석관묘 1기와 옹관묘 6기; (4) 각 무덤군에 돌바닥 1기씩; (5) A군에서는 대형 1기, 중형 2기, 소형 2기, 불명 1기; (6) A군의 모든 무덤에서 부장품 출토(석검 부장묘 3기, 무문토기 부장묘 2기, 관옥 부장묘 1기)

표8-기타 유적

권역	유적	무덤군	유적/무덤군 전통	무덤(군) 간 차이
A권	대전 상대동 중동골 · 양촌	A군(석관묘 1호와 2호, 토광묘 1호와 2호), B-(1)군(석관묘 8호-13호), B-(2)군(석관묘 7호, 토광묘 3호-5호, 옹관묘 1호), B-(3)군(석관묘 3호-5호), 단독(석관묘 6호)	(1) 단순군집(군집 내 일부 종렬배치); (2) B-(1)군과 B-(2)군에서는 무덤군 내 유사한 장축방향; (3) B-(1)군과 B-(3)군은 모두 석관묘; (4) B-(2)군에서는 돌바닥 또는 흙바닥끼리 종렬배치, 나머지군에서는 모두 흙바닥; (5) B-(1)군과 B-(2)군에서는 모두 중형	(2) A군과 B-(3)군에서는 무덤군 내 수직적 장축방향; (3) A군과 B-(2)군에서는 상이한 무덤형식; (5) A군에서는 대형 2기와 중형 2기, B-(3)군에서는 대형 1기와 중형 2기; (6) A군에서는 석검 부장묘 1기와 마연토기 부장묘 1기, B-(1)군과 B-(2)군에서는 석검 부장묘 1기와 관옥 부장묘 1기, B-(3)군에서는 석검과 석촉 부장묘 1기, 무문토기편 부장묘 1기, 동검 부장묘 1기
C-(2)권	부여 중정리	A군(1호-6호)	(1) 종렬배치와 횡렬배치의 교차; (2) 동일한 장축방향; (5) 모두 중형(불명 3기 제외)	(3) 석관묘 5기와 토광묘 1기; (4) 돌바닥 2기, 흙바닥 1기, 불명 3기; (6) 모든 무덤에서 부장품 출토

배치되어 있다. 보령 관산리유적과 청양 장승리유적에서는 각 3기의 석관묘가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한곳에 모여 있다. 보령 관당리유적 B군에서는 1기의 석관묘 주변에 4기의 토광묘가 서로 유사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분포한다. 보령 평라리유적에서는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는 지석묘, 구획석관석석관묘, 할석석관묘가 2개의 열을 이루고 있고, 서천 봉선리유적 무덤의 바닥은 모두 생토 처리되었다. 부여 신안리유적에서는 중형 석관묘 5기가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단순 군집을 이루고 있고, 가중리 가좌 유적에서는 소형 토광묘 3기가 유사한 장축방향을 보이며 단순 군집해 있다. 공주 분강·저석리 유적의 무덤은 모두 석관묘이고 대부분이 동일한 장축방향을 따르며 횡렬로 배치되어 있다. 논산 원남·정지리 유적에서는 대체로 석관묘는 석관묘끼리, 옹관묘는 옹관묘끼리 분포한다. 이처럼 무덤 간 일정한 특성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Ⅲ그룹 유적들은 I그룹 및 II그룹 유적들과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Ⅲ그룹 유적들에서는 I그룹이나 II그룹 유적들에서와 같이 군집을 이루는 무덤들 간 개별적인 차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표현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A권의 대전 상대동 중동골·양촌 유적(표8)에서는 몇 기의 무덤

이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군집 내 다양한 무덤 속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무덤 간 공유되는 일정한 특성도 찾아볼 수 없다. 부여 중정리유적(표8)에서는 유적 내 모든 무덤이 1호묘의 위치를 참조하여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장축방향을 따르고 있다. 무덤 간 개별적 차이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무덤의 보존상태 불량으로 인해 무덤 크기, 바닥 종류, 부장 품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검토가 불가능하다.

IV. 매장관행과 일상관행

앞 장에서 논의하였듯, 호서지역에는 원래부터 매장주체부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지석묘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지석묘를 통해서는 특정한 개인의 정체성보다도 지석묘 축조 및 기념과 관련된 집단 일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러한 집단성이 반드시 묘지 또는 취락 형성과정에 관련된 전체 집단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석묘가 묘지 안에서 발견된 경우, 보령 관창리A유적과 노천리유적에서처럼, 지석묘가 묘지 내 모든 무덤의 위치 결정에 참조된 것은 아니다. 취락 안에서 발견될 때는 지석묘와 취락 내 다른 유구의 축조 시기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거나, 만일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령 주교리와 죽청리 '가' 유적에서처럼 지석묘가 취락 내 특정 주거지 또는 주거군 부근에 축조되어 취락 주민 전체에 의해 공통적으로 참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즉,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자료에 근거할 때, 호서지역에서는 지석묘를 통해 특정한 개인성이 표현된 경우가 드물고, 집단성의 표현에 있어서도 전체 무덤이나 주거 집단과 관련된 경우보다는 특정 무덤이나 주거 집단과 관련된 집단성이 표상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비거석묘를 통해 표상된 개인성과 집단성에 있어서는 권역 간 차이가 크다. 우선 C권은 호서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무덤이 분포하는 지역이다(표2). 1-2기의 무덤이 단독 또는 소수 분포하는 유적이 대부분인 A권이나 B권에서와 달리, C권에서는 대부분의 유적에서 3기 이상의 무덤이 모여 군집을 이룬다. 이들이 취락 내에서 발견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주거군 상부 또는 주거군으로부터 독립된 곳에 위치하므로, 각 취락에서 무덤군이 형성되는 과정이 취락 전체 집단에 의해 인지되고 다양한 형태의 협상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C권에서는 무덤 간 공유되는 일정한 집단적 전통과 함께 특정 속성(들)을 통해 규칙적·반복적으로 표현된 개인성이 여러 분묘유적에서 관찰되는데(그룹 I과 II), 이러한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의 관계는 C권에서만 확인된다(표4). 이는 일련의 무덤을 축조하는 과정 동안 집단적 전통 형성과 유지를 위해 개별 무덤 간의 변이가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되었고, 그러한 관행이 C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C권에서는 상대고도가 낮으면서 수도작에 유리한 구릉에 입지한 취락이 주로 발견되고(朴性姬, 2006; 李弘鍾, 2003), 옥외 수혈유구의 깊이¹⁵⁾가 깊다(우정연, 2014; 許義行, 2011). 특히 현재까지 호서지역에서 보고된 청동기시대 논 유구는 모두 C권에서 발견되어(허의행, 2012), C권이 당시 호서지역 수도작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C권에서는 A권이나 B권에 비해 수도작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 및 노동력에 대해 보다 집약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졌고(김장석, 2008: 31-33),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권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장기간에 걸쳐 전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은 특정 경작 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한정적이고(circumscribed) 누적적인(dense) 방식으로 정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Barrett, 1994: 144-145).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별 무덤 간의 차이가 특정한 속성(들)을 통해 범주화되어 규칙적·반복적으로 표현되고 그러한 차이가 일정한 집단 전통을 구성하는 I그룹과 II그룹 유적들은 모두 C권에 속한다(표4). 그중에서도 개별 무덤 간의 차이가 열배치라는 집단적 전통에 위계적으로 종속되어 나타나는 I그룹 유적들은 모두 C-(2)권 유적들로서,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km 내에 위치한다. C-(2)권 분묘유적 중

15) 옥외 수혈유구의 깊이는 유적이 입지한 곳의 지형에 따라 후퇴적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수혈유구 출토 탄화물 분석(김경택 외, 2012) 및 수혈유구의 기능에 대한 실험·민족지 고고학적 연구성과(許義行, 2008, 2010)와 종합해볼 때, 수혈유구의 깊이와 식량자원의 저장 기간 사이에 대체적인 상관관계를 상징할 수 있다. 즉, 깊이가 깊은 수혈유구는 식량자원의 장기 저장용으로, 얕은 수혈유구는 단기 저장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형적인 송국리유형 단계 이전으로 올려볼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된 무덤은 5기가 있는데, 그중 논산 원봉리유적 1호 지석묘를 제외한 나머지 4기 모두 I그룹 유적에 속한다(표3). C-(2)권은 전기에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백지대로 남아 있었던 곳으로서(김장석, 2006: 71-72; 2008: 34), 전기 후반 또는 중기 전반 이 권역에서의 토지 접근권을 두고 집단 간 그리고 개인 간 활발한 협상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 새로 도착한 주민 사이의 관계가 무덤 간 순서적 관계를 통해 표상되었을 수 있다(禹延延, 2011, 2012).

개별 무덤 간 차이가 특정 속성(들)을 통해 두세 개의 범주로 표현되고 그러한 범주들 간의 상호 대칭성에 대한 강조가 집단적 전통을 구성하는 II그룹에 속한 유적들은 C권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중기 전반 이후가 되면 분묘와 취락 유적이 C권 곳곳으로 확산되고, 그에 따라 집단 간 토지에 대한 접근권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때에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협상되는 집단 간 결연관계뿐만 아니라 특정 경작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들의 일상생활도 중요해져 전자와 관련된 범주와 가치를 후자와 관련된 그것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담론과 관행이 성행했을 것이고, II그룹에 속한 분묘유적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禹延延, 2011, 2012).

이에 비해 III그룹에 속한 유적은 C권에서뿐만이 아니라 A권에서도 확인되어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발견된다. 그중 C-(2)권의 공주 분강·저석리와 논산 원남·정지리 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은 전기에도 점유가 되었던 A권과 C-(1)권에 분포한다. 호서지역에서는 상한이 중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유물이 출토된 무덤이 C-(2)권뿐만이 아니라 A권, B-(1)권, C-(1)권에서도 확인되므로(표3), 중기 분묘유적의 확산을 C-(2)권으로부터의 일방적 확산으로는 볼 수 없다. 즉 III그룹에 속한 유적, 더 나아가 한 지점에 비거석묘가 3기 미만으로 소수 분포하는 유적, 그리고 지석묘 유적(표2)이 각 권역에서 전기 중-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매장 관행과 담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들 간의 관계는 C권, 특히 금강 중하류역의 송국리형 무덤을 통해 전개되었던 정형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음 B권에서는 총 9개소의 유적에서 10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용관묘 2기가 서로 거리를 두고 분포하는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을 제외하면, B권의 모든 유적에서는 1기의 무덤이 단독으로 분포한다(표2). 또 지식묘 1기가 보고된 서산 반양리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적에서 무덤은 취락 내에서 주거지와 함께 발견되었다. 무덤이 주거지와 함께 발견된 유적들 중, 아산 덕지리유적에서는 무덤이 주거군보다 상부에 입지하고, 홍성 남장리유적에서는 주거군 분포 구릉의 반대편에 무덤이 입지한다. 그 외 나머지 유적에서는 무덤이 주거군보다 낮은 곳이나 주거지 사이에 위치, 또는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보인다. 전기 주거지 또는 전기와 중기 주거지와 공반되는 B권의 다른 유적 무덤들과 달리 아산 덕지리유적 무덤은 중기 주거지와만 공반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산 덕지리유적 무덤은 B권의 다른 무덤들보다 늦게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권의 무덤들 중 시기를 구별해볼 수 있을 만한 유물이 출토된 경우는 천안 운전리유적 주구관석석관묘가 유일한데, 여기에서는 전기로 편년되는 대부소호 한 점이 출토되었다.

위와 같은 무덤의 분포, 시기별 주거지와와의 공반관계, 부장품의 시기를 종합해보면, B권에서는 전기와 중기 통틀어 극히 소수의 무덤만 축조되었는데 이들은 군집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입지에 있어 구릉 정상부와 같이 취락 구성원 전체가 참조해볼 수 있는 장소보다는 구릉 사면의 주거지 사이나 주거군 하부, 아니면 아예 특정 주거지와 중복되도록 축조된 점도 이 지역 무덤축조 관행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B권에서는 취락 구성원 전체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보다는 취락 내 특정 주거 집단과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이 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아산 덕지리 유적에서처럼 주거군과 독립적으로 구릉 정상부에 무덤이 위치한다거나, 홍성 남장리유적에서처럼 주거군과 떨어져 주거군이 분포하는 구릉 반대편 사면에 독립적으로 무덤이 위치하는 경우는 특정 주거나 주거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보다는 취락 전체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락 내 특정 집단과 관련된 무덤이었던, 취락 전체 구성원과 관련된 무덤이었던, B권에서는 기존 무덤이 새로운 무덤의 축조를 통해 참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상대고도가 높은 고지성 취락이 주를 이루고, 양인석부나 석축의

출토율이 높으며, 옥의 수혈유구의 깊이가 얕은 B권에서는 수도작보다는 수렵이나 화전농경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朴性姬, 2006; 安在皓, 2000, 2012; 우정연, 2014; 李弘鍾, 2003).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접근권이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토지와 농업 시설 및 노동력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C권에 비해 덜 집약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집단 간 광역적 연결망 형성을 전제로 하는 동검(김장석, 2008: 34-35)이나 석검(孫曉鎬, 2010b: 57)이 A권이나 C권에서는 다수 발견되었지만, B권에서는 서산 반양리유적 지식묘 출토품이 유일하다¹⁶⁾(우정연, 2014: 126). 따라서 B권에서는 A권이나 C권에서와 같이 동검이나 석검 교환을 통해 거시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결연집단이 아니라 국지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결연집단이 주를 이루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자연환경적·정치경제적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단 간 결연관계나 개개인의 소속집단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었으므로, 집단 간 그리고 개인 간 의무와 권리관계가 C권에서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축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B권에서 무덤축조 자체가 드물게 이루어지고, 무덤을 통한 집단적·개인적 정체성의 표현이 국지적인 수준에서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A권에서는 매우 다양한 무덤축조 관행이 발견된다(표2). 무덤이 발견된 총 23개소의 유적 중 지식묘가 발견된 유적이 3개소, 비거석묘가 발견된 유적이 17개소, 지식묘와 비거석묘가 함께 발견된 유적이 3개소이다. 또 지식묘가 취락 내에서 발견된 유적이 2개소, 비거석묘가 취락 내에서 발견된 유적이 16개소이다. 이 중 무덤이 주거지 또는 주거군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입지하는 유적이 8개소이고, 무덤이 주거지 주변이나 주거지보다 낮은 곳에서 발견된 유적이 10개소이다. 한편 무덤이 3기 이상 군집을 이루는 유적은 청원 황탄리와 아득이, 대전 용계동, 상대동 원골, 상대동 중동골·양촌 유적뿐이다. 이 중 앞 네 유적에서는 군집을 이루는 무덤 간 공유되는 일정한 특성이 확인되기는 하나 무덤 간의 개별적인 차이는 불규칙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대전 상대동 중동골·양촌 유적에서는 A권 분묘유적 중 가장 많은 수인 19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5기 이외의 무덤이 모여 이루어진

16) 이 경우도 정식 발굴을 통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사항이다.

4개의 무덤군이 취락 여기저기에 분산 분포한다. 이 유적에서는 몇 개의 무덤이 모여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무덤군 사이에 공유되는 일정한 규칙이나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각 군집을 구성하는 무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군집 내 다른 무덤들과 차별화되어 있다.

이처럼 A권에서는 다양한 묘제와 무덤속성, 입지를 이용하여 여러 수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상된 집단성과 개인성이 확인된다. 이 권역에서는 소수의 지식묘가 독립적으로 축조되거나 비거석묘 또는 주거지와 공반되기도 하고, 비거석묘가 단독 또는 소수로 분포하거나 다수로 군집을 이루기도 한다. 다수의 무덤이 군집을 이루는 경우, 공간적 근접성과 함께 무덤 간 공유되는 일정한 특성을 통해 표현되는 집단성이 관찰되지만, 무덤 간의 개별적인 차이는 불규칙적이고 일회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A권에서 취락은 구릉지대뿐만 아니라 충적대지에도 입지하고, 취락 간 옥외 수혈유구의 깊이 차이가 크며, 어망추 출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B권과 C권에 비해 다양한 생계방식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우정연, 2014). A권에서 다양한 묘제, 무덤속성, 입지를 통해 개인성과 집단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A권 내에서도 생계방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개인과 집단이 맺었던 관계 및 개인성과 집단성에 부여된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V. 맺음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의 가변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무덤 간 참조관계에 주목하여 무덤을 통해 표상된 개인성과 집단성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후, 일상관행과의 비교를 통해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볼 때, 당시 호서지역 벼농사 중심지이고 무덤 최대 밀집지인 C권에서는 중기가 되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이 특정 경작 지대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형성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정한 집단성과 개인성이 규칙적·반복적인 방식으로 무덤을 통해 표상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화전농경이나 수렵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춘

B권에서는 전기와 중기에 걸쳐 집단 간 결연관계나 개인의 소속집단을 필요에 따라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 의무와 권리 관계가 C권에서만큼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축적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권역에서 무덤을 통한 집단적·개인적 정체성의 표현이 국지적인 수준에서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장관행과 일상관행 모두에서 유적 간 많은 차이가 관찰되는 A권에서는 국지적 집단에 따라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이 달랐고, 그에 따라 시기뿐만 아니라 국지적 집단에 따라서도 다양한 묘제와 무덤속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성과 집단성이 표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관행과 일상관행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특성을 종합해볼 때,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개인성과 집단성의 문제는 특정 묘제를 통해 또는 특정 시기나 권역에서 개인성이 강조되었느냐 집단성이 강조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무덤을 통해 표상된 개인성과 집단성을 일상관행과 관련하여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보다 중요한 부분은 무덤 또는 무덤군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들 중 어느 부분이 어떻게 출현하고 조합되어 개인성과 집단성이 표현되고, 그러한 표현이 얼마만큼 규칙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어느 정도의 시·공간적 범위에 걸쳐 보편성을 띠었느냐 하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姜仁求, 「論山 新基里 支石墓」. 『古墳研究』, 學研文化社, 2000a.
_____, 「扶餘 堂山 石棺墓」. 『古墳研究』, 學研文化社, 2000b.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梨寺里·月岐里 遺蹟』. 2005.
_____, 『鴻山-九龍間 道路擴張 및 鋪裝工事 區間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2006.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館山里遺蹟 (I)』. 1996.
_____, 『寬倉里 遺蹟: B·G 區域』. 2001a,
_____, 『黃灘里 遺蹟』. 2001b.
_____, 『麻田里 遺蹟: A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2002a.
_____, 『大井洞 遺蹟』. 2002b.
_____, 『麻田里 遺蹟 C地區』. 2004a.
_____, 『舟橋里 遺蹟』. 2004b.
공민규, 『青銅器時代 前期 錦江流域 聚落 軟球』.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公州大學校博物館, 『烏石里 遺蹟』. 1996.
_____, 『汾江·楮石里 古墳群』. 1997.
_____, 『白石洞遺蹟』. 1998.
_____, 『山儀里 遺蹟』. 1999.
_____, 『白石·業成洞 遺蹟』. 2000.
_____, 『海美 機池里 遺蹟』. 2009.
國立公州博物館, 『松菊里 V』. 1993.
國立夫餘博物館, 『松菊里 VI』. 2000.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 I』. 1979.
_____, 『松菊里 II』. 1986.
_____, 『松菊里 III』. 1987.
國防文化財研究院, 『燕岐 龍湖里遺蹟: 行政中心複合都市 內 3-3-B地點』. 2012.
김경택·김민구·류아라, 「부여 송국리 유적 수혈의 기능: 제14차 발굴 자료의 검토」. 『古文化』 79, 2012.
김권구,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2005.
金吉植, 「扶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 9, 1998.
金範哲, 「湖西地域 支石墓의 시·공간적 특징」. 『韓國考古學報』 74, 2010a.
_____, 「湖西地域 지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 『韓國上古史學報』 68, 2010b.
_____, 「巨石記念物과 社會政治的 發達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 남한지역 지식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화를 위하여」. 『韓國上古史學報』 75, 2012.

- 金範哲·朴柱煥, 「湖西地域 松菊里型 墳墓의 階層化樣相 論議」. 『韓國考古學報』 82, 2012.
- 金承玉,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45, 2001.
- _____,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제3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006.
- 金永培, 「公州 灘川 三角里 先史遺蹟」. 『박물관 신문』 74, 1977.
- 金壯錫,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 과정」. 『韓國考古學報』 51, 2003.
- _____, 「충청지역의 선송국리물길문화와 송국리유형」. 『韓國上古史學報』 51, 2006.
- _____,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湖西考古學』, 2007.
- _____,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 67, 2008.
- 김종일, 「한국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송국리 유적 형성 과정에 대한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적 접근」. 『國史館論叢』 104, 2004.
- _____,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고학』 5-2, 2006a.
- _____,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가능성」. 『韓國考古學報』 58, 2006b.
- _____,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韓國考古學報』 63, 2007.
- 羅建柱, 「青銅器時代 前期 聚落의 成長과 松菊里類型 形成過程에 대한 研究: 韓半島 中西部地方 資料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1977.
- 朴性姬, 「青銅器時代 聚落類型에 대한 考察: 中西部地域 遺蹟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 54, 2006.
- 박양진, 「아. 충청남도」.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 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 裴眞晟,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2007.
- _____, 「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 『韓國考古學報』 80, 2011.
-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 상대동(중동골·양촌) 유적』. 2011.
-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산직리 고인돌』. 1993.
- 서울대학교박물관, 『훈암리 유적 출토 석기 보고서』. 2004.
- 성정용, 「大田 新垆洞·比來洞 青銅器時代遺蹟」. 『호남고고학의 제문제』(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1997.
- 孫峻鎬, 「錦江流域 松菊里文化段階의 支石墓 檢討」. 『古文化』 60, 2002.
- _____, 「錦江流域 松菊里文化의 群集 貯藏孔 研究」. 『科技考古研究』 10, 2004.
- _____,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 _____,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墓制의 性格」. 『先史와 古代』 31, 2009a.
- _____, 「湖西地域 磨製石劍의 變化想」. 『湖西考古學』 20, 2009b.
- _____, 『송국리형주거지 집성』. 서경문화사, 2010a.
- _____,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 체계에 대한 초보적 검토」. 『湖南考古學報』 36, 2010b.
- 亞洲大學校博物館·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寬倉里遺蹟: A·F區域 發掘 調査報告書』. 1999.
- 安在皓,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2000.
- _____,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2004.
- _____,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2009.
- _____, 「墓域式支石墓의 出現과 社會相: 韓半島 南部의 青銅器時代 生計와 墓制의 地域相」. 『湖西考古學』 26, 2012.
- 禹延延, 「금강 중류 남부 송국리유형 상한 재고: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 유적을 중심으로」. 『湖西考古學』 23, 2010.
- _____, 「錦江中下流 松菊里型 무덤의 巨視的 傳統과 微視的 傳統에 대한 試論的 考察」. 『韓國考古學報』 79, 2011.
- _____, 「錦江中流域 松菊里文化段階 社會의 威信構造에 대한 試論的 考察」. 『韓國考古學報』 84, 2012.
- _____,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락 비교연구: 물리적·사회적 저장 전락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85, 2014.
-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1959.
- 尹武炳, 「公州郡 灘川面 南山里 先史墳墓群」.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考古學篇』, 一志社, 1987, 45-72쪽.
- 李揆山, 「扶餘碑堂里的 先史遺蹟」. 『考古學』 4, 1977.
- 李南奭, 「忠南 西海岸 고인돌 2例」. 『百濟文化』17, 1987.
- 李榮文, 『韓國 支石墓 社會 研究』. 學研文化社, 2002.
- 이형원,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2009.
- 李弘鍾, 「松菊里文化의 時空的展開」. 『湖西考古學』 6·7, 2002.
- _____, 「松菊里型 聚落의 景觀의 檢討」. 『湖西考古學』 9, 2003.
- _____, 「松菊里文化의 文化接觸과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 48, 2005.
- _____, 「송국리형취락의 공간배치」. 『湖西考古學』 17, 2007.
- 鄭聖喜, 「公州 南山里·松鶴里 出土遺物」. 『松菊里 IV』, 國立中央博物館, 1991.
- 中央文化財研究院, 『論山 院北里 遺蹟』. 2001.
- _____, 『大田 加午洞 遺蹟』. 2003.

- _____, 『大田 伏龍洞 遺蹟 II』. 2008a.
- _____, 『大田 龍山·塔立洞 遺蹟』. 2008b.
- _____, 『天安 新芳洞遺蹟』. 2008c.
- _____, 『大田 上垞洞 원골遺蹟』. 2011a.
- _____, 『大田 龍溪洞遺蹟』. 2011b.
- 中原文化財研究院, 『清州 佳景洞 遺蹟』. 2006a.
- _____, 『清州 飛下洞遺蹟』. 2006b.
- _____, 『清州 飛下洞 遺蹟 II』. 2008.
- 池健吉, 「論山圓峰里 支石墓와 出土遺物」. 『考古美術』 136·137, 1978.
- 忠南大學校博物館, 『弓洞』. 2006.
- 忠南發展研究院, 『公州 長善里 土室 遺蹟』. 2003.
- _____, 『扶餘 遮集管路 埋設區間 遺蹟調查報告書』. 2004.
- 忠北大學校博物館, 『大清덤 水沒地區 遺蹟 發掘調查報告書』. 1979.
- _____, 『평라리 선사유적』. 1996.
- _____, 『清州 鳳鳴洞 遺蹟(III)』. 2004.
- 忠清南道歷史文化研究院, 『牙山 鳴岩里 밖지브레遺蹟』. 2011.
- _____, 『論山 源南里·定止里遺蹟』. 2012.
- 忠清南道歷史文化院, 『扶餘 羅福里 遺蹟』. 2004.
- _____, 『舒川 鳳仙里 遺蹟』. 2005.
- _____, 『青陽 鶴岩里·分香里 遺蹟』. 2006a.
- _____, 『아산 덕지리 유적』. 2006b.
- _____, 『대전 장대동 유적』. 2006c.
- _____, 『公州 濟川里 遺蹟』. 2007.
- 忠清埋藏文化財研究院, 『保寧 花山洞 遺蹟』. 1999.
- _____, 『公州 安永里 새터·신매 遺蹟』. 2003.
- 忠清文化財研究院, 『天安 云田里 遺蹟』. 2004a.
- _____, 『大田 自雲洞·秋木洞 遺蹟』. 2004b.
- _____, 『青陽 長承里 古墳群』. 2004c.
- _____, 『扶餘 井洞里 遺蹟』. 2005.
- _____, 『唐津 自開里 遺蹟 I』. 2006a.
- _____, 『扶餘 佳中里 가좌·산직리 및 恩山里 상월리 遺蹟』. 2006b.
- _____, 『舒川 楸洞里 遺蹟: I 地域』. 2006c.
- _____, 『舒川 楸洞里 遺蹟: II 地域』. 2006d.
- _____, 『天安 龍井里 遺蹟』. 2008a.
- _____, 『扶餘 羅福里동실·石隅里·元門里遺蹟』. 2008b.
- _____, 『烏石里遺蹟』. 2008c.

- _____, 『舒川 楸洞里 遺蹟: III地域』. 2008d.
- _____, 『舒川 玉南里 遺蹟』. 2008e.
- _____, 『忠南 各地 文化遺蹟 試(發)掘 調査 報告書』, 2009a.
- _____, 『保寧 蟻坪里 가느실골 古墳群』. 2009b.
- _____,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 2009c.
- _____, 『大田 原新興洞 달래기 遺蹟』. 2010a.
- _____, 『홍성 남장리 유적』. 2010b.
- _____,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 2011.
- 하문식, 「사. 충청북도」.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 분포, 형식, 기원, 전과 및 사회복원』,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 韓國考古環境研究所, 『燕岐 松潭里·松院里 遺蹟』. 2010.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西海岸 高速道路 建設區間(藍浦-熊川) 文化遺蹟發掘調査 報告書』. 2000a.
- _____, 『保寧 冠堂里 遺蹟』. 2000b.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고고학연구소, 『松菊里VII』. 2011.
- 許義行, 「前期 青銅器時代 豎穴遺構의 性格과 變化樣相」. 『韓國青銅器學報』 3, 2008.
- _____, 「청동기시대 저장체계(System)의 양상과 변화」. 『청동기시대 생업에서의 저장의 역할』, 청동기학회 생업분과 2010년 워크숍 자료집, 2010.
- _____,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저장수혈의 양상과 변화」. 『嶺南考古學』 58, 2011.
- _____,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灌溉體系와 展開樣相」. 『湖南考古學報』 41, 2012.
- _____,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연구」.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황재훈,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湖西考古學』 20, 2009.
- Bourdieu, P.,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The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1994.
- Bradley, R., *The Social Foundations of Prehistoric Britain: Themes and Variations in the Archaeology of Power*. London: Longman, 1984.
- Brumfiel, E. M.,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an Introduction. in E. M. Brumfiel and J. W. Fox(eds.),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3-13.
- _____, On the Archaeology of Choice: Agency Studies as a Research

- Stratagem. in M-A. Dobres and J. Robb(eds.), *Agency in Archaeology*, London: Routledge, 2000, pp. 249-255.
- Chapman, J., Tension at Funerals: Social Practices and the Subversion of Community Structure in Later Hungarian Prehistory. in Dobres, M-A., and J. E. Robb(eds.), *Agency in Archa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pp. 169-195.
- Clark, J. and M. Blake, The Power of Prestige: Competitive Generosity and the Emergence of Rank Societies in Lowland Mesoamerica. in E. M. Brumfiel and J. W. Fox(eds.),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17-30.
- Earle, T., *How Chiefs Come to Power: the Political Economy in Pre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 Fowler, C., *The Archaeology of Personhood: an Anthropological Approach*. New York: Routledge, 2004.
- Giddens, A.,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 Gillespie, S. D., Olmec Thrones as Ancestral Altars: the Two Sides of Power. in J. E. Robb(ed.), *Material Symbols: Culture and Economy in Prehistory*,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99, pp. 224-253.
- Hodder, I., This is not an Article about Material Culture as Text.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8, 1989, pp. 250-269.
- _____,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Kelly, R. C., *Constructing Inequality: the Fabrication of a Hierarchy of Virtue among the Etoro*.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 Kim, J-I. *Material Categorisation and Human Subjectification*. Unpublished Ph.D. thesis.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2002a.
- _____, An Archaeology of Death: Interpreting the Spatial Structure of Burial Groups in the Songgungni Culture of the Korean Bronze Age.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5, 2002b, pp. 101-128.
- _____, The Growth of Individuals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Bronze Ag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7, 2004, pp. 31-60.
- Meskell, L., *Archaeologies of Social Life*. Oxford: Blackwell, 1999.
- Robb, J. E., Secret Agents: Culture, Economy, and Social Reproduction. in J.E. Robb(ed.), *Material Symbols: Culture and Economy in Prehistory*,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99, pp. 3-15.

- Rowlands, M. Exclusionary Tactics in the Logic of Collective Dynamics. *Critique of Anthropology* 5, 1985, pp. 47-69.
- _____, Kinship, Alliance and Exchange in the European Bronze Age. in K. Kristiansen and M. Rowlands, *Social Transformations in Archaeology*, London: Routledge, 1998, pp. 142-182.
- Shanks, M. and C. Tilley, Ideology, Symbolic Power and Ritual Communication: a Reinterpretation of Neolithic Mortuary Practices. in I. Hodder(ed),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129-154.
- Shennan, S., Ideology, Change and the European Early Bronze Age. in I. Hodder(ed.),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155-161.
- Srensen, M. L. S., *Gender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2000.
- Spencer, C., Factional Ascendance, Dimensions of Lead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Centralised Authority. in E. M. Brumfiel and J. W. Fox,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31-43.
- Strathern, A.(ed.). *Inequality in New Guinea Highlands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Strathern, M., Self-interest and the Social Good: Some Implications of Hagen Gender Imagery. in S. B. Ortner and H. Whitehead, *Sexual Meanings: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66-191.
- Tarlow, S., Bodies, Selves and Individuals. in Y. Hamilakis, M. Pluciennik and S. Tarlow(eds), *Thinking through the Body: Archaeologies of Corporeality*. Dordrecht: Kluwe, 2002.
- Thomas, J., Reading the Body: Beaker Funerary Practice in Britain. in P. Garwood, D. Jennings, R. Skeates, and J. Thomas(eds.), *Sacred and Profane*, Oxford: Oxford University Committee for Archaeology Monograph 32, 1991a, pp. 33-42.
- _____, *Rethinking the Neolith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b.
- _____, *Time, Culture and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_____, *Archaeology and Modernity*. New York: Routledge, 2004.
- Tilley, C., Ideology and the Legitimation of Power in the Middle Neolithic

- of Southern Sweden. in D. Miller and C. Tilley(eds.),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111-152.
- _____,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Oxford: Berg, 1994.
- Wilkie, L. A. and Bartoy, K. M., A Critical Archaeology Revisited. *Current Anthropology* 41, 2000, pp. 747-777.
- Woo, J-Y., *Power and Social Change in Korean Middle Bronze Age Mortuary Practice: Burials, Houses, and Contexts*. Unpublished Ph.D. Thesis,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2009.
- Yaeger, J. and M. Canuto, Introducing an Archaeology of Communities. in *The Archaeology of Communities: a New World Perspective*, M. Canuto and J. Yaeger(eds.), London: Routledge, 2000.

국 문 요 약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는 사회적 복합도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서 복합사회 발전과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개인주의를 당시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투영하여 본 결과 개인과 집단 및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의 가변적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물질자료 중 당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범주와 담론이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된 무덤자료 분석을 통해 그러한 가변적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호서지역은 그와 같은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특히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는 지식묘라는 거석묘와 송국리형 묘제를 포함한 비거석묘가 특징적인 시·공간적 분포를 보이며 밀집해 있고, 거석묘와 비거석묘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성과 집단성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무덤들 사이의 참조(reference)관계에 주목하여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에 개인성과 집단성이 표상된 방식이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후, 일상관행과의 비교를 통해 그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당시 호서지역 벼농사 중심지이고 무덤 최대 밀집지인 C권(서해안 남부와 금강 중하류역)에서는 집단 간 그리고 개인 간 의무와 권리 관계가 경작지대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형성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정한 형태의 개인성과 집단성이 무덤을 통해 규칙적·반복적으로 표상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화전농경이나 수렵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춘 B권(아산만 일대)에서는 집단 간 결연관계나 개인의 소속집단을 필요에 따라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집단 간·개인 간 의무와 권리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축적된 경우가 드물었고, 무덤을 통한 집단적·개인적 정체성 표현은 국지적인 수준에서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장관행과 일상관행 모두에서 유적 간 많은 차이를 보이는 A권(금강 상류역)에서는 국지적 집단에 따라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이 달랐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묘제와 무덤속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성과 집단성이 표상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0. 30.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개인성(individuality), 집단성(collectivity), 거석묘(megalithic burials), 비거석묘(non-megalithic burials), 호서지역(Hoseo region)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Represented in Megalithic and Non-megalithic Burials in the Korean Early to Middle Bronze Age Hoseo Region
Woo, Jung-young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about social change between the Early and Middle Bronze Ages in the Hoseo region have a serious problem in that they base their arguments on present-day individualism. Recognizing the problem, this paper looks at the varying ways in which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were represented through burials. In order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the ways in which collective burial traditions were formed, reproduced, or modified by individual burials, ways of referencing between burials are analyzed. The result is then compared with daily practice conducted in the same region and period so that we can understand where those differences in the ways of referencing between burials came from. It reveals that in Area C, where the largest number of burials is reported and rice farming was conducted most intensively in the Hoseo region, a dense history of obligations and rights between and within groups accumulated in relation to their cultivated la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course of those processes,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were represented in regularized and repetitive ways through burials in Area C. On the other hand, Area B is the region where the smallest number of burials is reported in the Hoseo region, and where hunting or slash-and-burn farming was a suitable way of subsiste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group or individual identities were expressed very sporadically at a local level, as it would be relatively easy to change group alliances and individual affiliations. Lastly, diverse forms of daily and mortuary practice are observed in Area A. Accordingly, individual and group identities in daily practice appear to have been formed in different ways in different local groups. It would be such varied individual and group identities that were represented by the variety of associations of different burial types and attributes in Area A.